

# 자성대부두 컨테이너화물 처리 종전기록 경신

## 갠트릭크레인 4기 투입 시간당 260TEU 처리

부산신항 및 중국 상하이 양산신항 개장을 앞둔 가운데 올 들어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부두들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컨테이너화물 처리 속도를 앞당기는 등 치열한 신기록 경쟁을 벌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부두운영회사들이 신규 물동량과 선사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대외에 부두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항 자성대부두 운영사인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은 지난달 28일 입항한 컨테이너선박인 'KMTC 상하이'호에 갠트릭크레인 4기를 투입해 본선 하역기준으로 시간당 259.8개의 컨테이너를 처리, 종전 신선대부두가 갖고 있던 국내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같은 신기록은 허치슨이 최근 자성대부두에 크레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들어 옮길 수 있는 트윈 리프트 시스템을 도입, 부두에 설치된 트윈리프트 7기 중 3기를 상하이호 화물 하역에 집중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신선대부두 운영사인 (주)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PECT)은 지난 8월26일 일본 NYK사의 7,200TEU급 컨테이너선에 갠트릭크레인 6기를 투입, 모두 2천86개(시간당 평균 238개)를 처리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PECT는 이달 중 국내 최초로 자동화 야드크레인(ATC)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부두안벽의 갠트릭크레인 하역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신선대부두 이전에는 허치슨이 지난 2월20일과 4월17일 감만부두 내 허치슨이 운영하는 선석에서, 그리고 지난 6월9일 자성대부두에서 각각 시간당 171.2개, 180.4개, 181.9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신기록을 잇달아 경신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1일 감만부두의 한진해운 선석과 세방 선석이 통합돼 각종 시설장비가 통합운영되면서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통합 전 연간 118만개에서 통합 후 135만개로 늘어나 신기록 경쟁에 가세할 태세다.

이에 대해 허치슨 관계자는 "최근 세계 유명 항만들이 허브 포트(중심항만) 경쟁을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T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존 선석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